



<http://sheunbit.es.kr>

은빛통신

[함께 성장하고 꿈이 빛나는 행복한 학교]

제 2021 - 13528호

☎문의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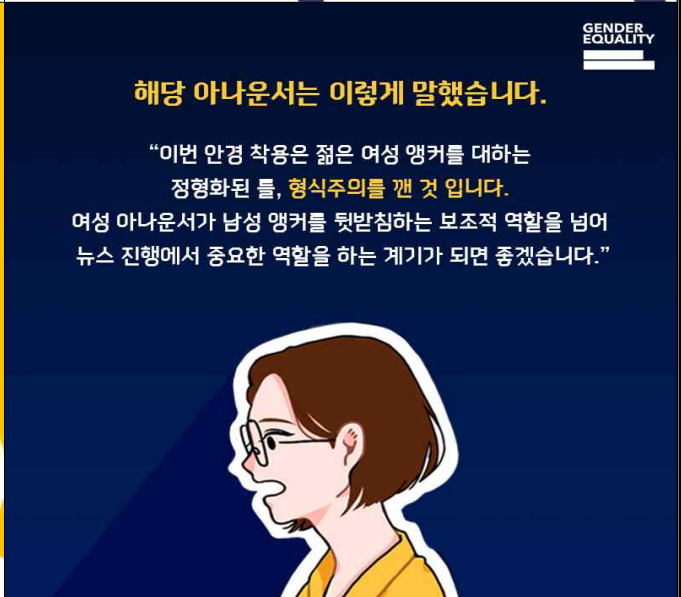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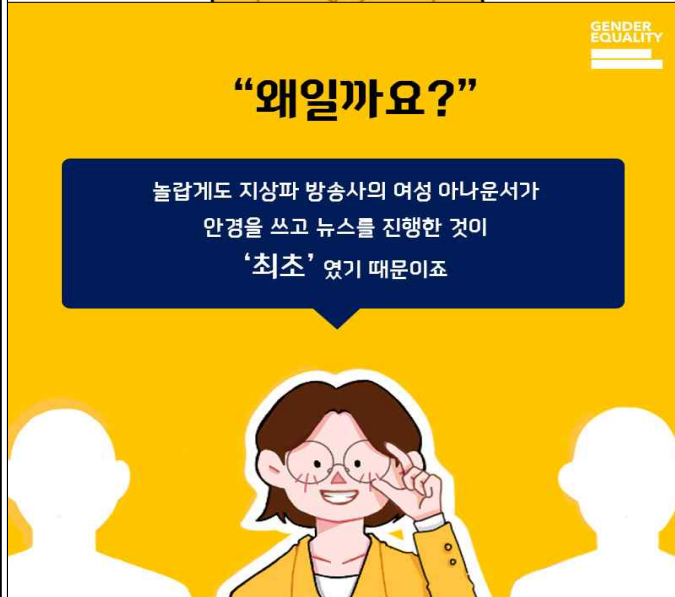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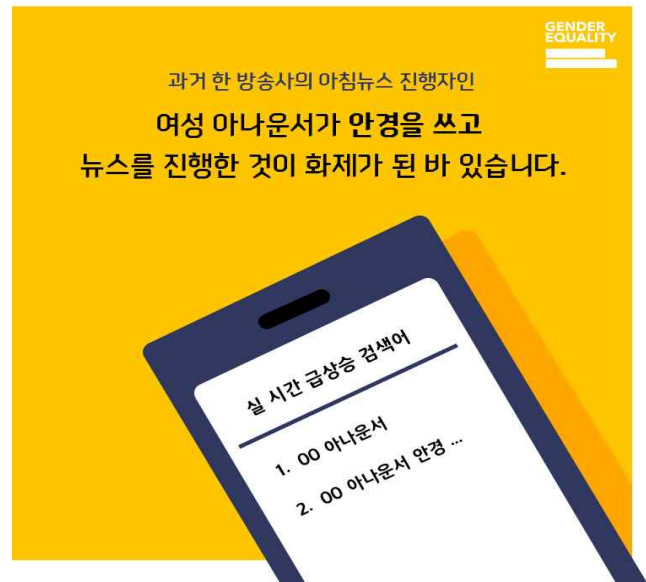
031-8085-7035

양성평등 가정통신문
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 항상 가정 내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. 본교에서는 교육공동체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고 양성평등한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가정에서도 양성평등한 사회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.

< 여성 아나운서와 ‘안경’ >

출처: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젠더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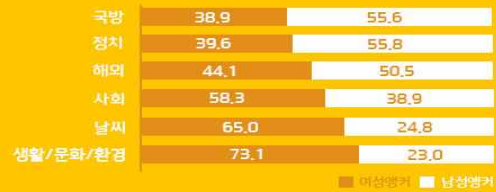
여러분이 지금껏 봐왔던 뉴스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.
나이가 지긋한 남성 앵커는 늘 왼쪽에,
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한껏 치장한 여성 아나운서는 늘 오른쪽에...

이런 화면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?



지금까지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의 성차별적 실태는
꾸준히 지적된 바 있습니다.

우선 성별에 따라 다루는 뉴스 주제가 달랐는데요.



정치와 국방 관련 뉴스는 남자 앵커가
사회 관련, 생활정보나 날씨 및 해외 뉴스 아이템은 여성 앵커가
소개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.

출처: 국가인권위원회(2018)

이는 채용상의 차별로도 이어졌습니다.

한 지역의 공영방송에서는 20년간 여성 아나운서만 계약직으로
뽑았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습니다.



MBC 16개 계열사 아나운서의 고용형태별 성비 현황



자료: 국가인권위원회

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에
'채용상 성차별 실태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서라'는
권고를 하기도 했는데요.

출처: 간부 "여자가 더 뛰어나도 남자 뽑았을 것" 사실상 채용 차별 시인
경향신문/20.7.18.



똑같은 직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

'젊고 아름다워야 하는'
일시적이고 보조적인 역할로 여겨졌던 여성 아나운서

이제 우리, 새로운 뉴스 화면을 상상해보는 건 어떨까요?



지난 2019년 11월,

KBS의 9시 뉴스 메인 앵커 자리에
처음으로 40대 여성이 등장했습니다.



Today weather -



남성 기상캐스터도 등장하는가 하면,
날씬하지 않은 체형의 평범한 여성이
날씨를 전달하는 외국 뉴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.

“여성은 소수자가 아니다.
우리는 카메라 앞뒤에서
남자 동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
경쟁하는 사회를 원한다”

- 영화배우 케이트 블란쳇의 인터뷰 중



이제 뉴스 화면을 볼 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잘 살펴보세요.
오늘은 주변 동료들과 이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?

2021년 10월 26일

은 빛 초 등 학 교 장